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 : 네 마음을 바른길로 인도하라 성경: 잠언
23장 12-21절

12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13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4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15 내 아들이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16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17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8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9 내 아들이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20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21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 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잠23:12-21)

년말을 잠언의 말씀과 함께하면 의미가 있을 줄 안다.

12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에 착심하라.

-착심하라는 것은 성실하게 포기하지 말고, 신중하게 정성을 기울여, 효과를 고려해서 훈계하라는 뜻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는 지식이 최고의 자료가 된다. 지식이 부족하면 훈계는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스스로 훈계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나 학교에 의뢰해야 한다.

13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채찍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채찍을 우리는 인생 채찍이라고 한다.

-자녀를 훈계하는 권한은 먼저 부모에게 있으며, 부모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어긋 자라게 된다.

14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물에서 구원하리라

-자녀를 그냥 둔다고 해서 정신차리는게 아니다.

-그는 더 악하고 못된 것을 익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채찍해서라도 엄하게 키우는 것이 좋다.

15 내 아들이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자녀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닌, 지혜다.

-거짓은 쉽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신용을 잃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그를 중요하지 않게 여길 것이다.

-잡언은 권모술수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피를 내는 것을 지혜라고 여기지 않는다.

-잡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순종, 정직, 겸손, 진실, 경외 등이다.

-특히 경외는 지식을 얻는데 매우 중요하며, 자신의 단점을 제거하는데 특효가 있다.

17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어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잠시는 죄인이 죄를 지으면서 크게 부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를 비난하거나 두둔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하다.

18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
- 우리 하나님은 성품도 달아 보시고, 진심을 저울질 하신다.
-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19 내 아들이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 듣고 지혜를 얻으라. 듣는 것을 즐거워하라.
- 경외가 바르게 듣게 하고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만들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다고 결단하게 한다.
- 결단하기까지 이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

21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 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잠23:12-21)

<찬양예배>

주제: **제목: 재앙이 뉘게 있느냐** 말씀: 잠언 23장 22-35절

22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중하라;듣고 따르라.

경히 여기지 말라;무시하지 말라.

-어미의 소리가 잔소리 같지만,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말이니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대로 순종하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

23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라.

-진리를 파는 것처럼 하지 말라.

-지혜, 훈계, 명철 등 영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사되 팔지는 말아야 한다.

-왜냐면 영적인 가치들은 자기가 정하는 가격에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것은 자기가 귀하게 여길수록 귀하다.

-자기가 충분한 재물이 있다면 큰 값을 치루고 사야 할 것이다.

24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6 내 아들이야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이다

-네 마음을 내게 주라;생명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서 그 부모의 소원을 들어서 자녀를 그 가정에 허락하신다.

-또는 그 가정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고귀하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27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음녀(이방여인);성적인 매력만으로 사람을 요리하고 진액을 뽑아가려는 여자.

-성적인 매력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은 악하다.

-여인의 매력은 성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뿐. 성적인 매력이란 옷과 같은 것.

-능력있는 여인이 중요함. 아이를 낳아 기르고, 살림을 하며, 경계를 아는 여인. 분위기를 유지하며, 생산하는 자들.

28 참으로 그는 강도 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29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하는 자에게, 분쟁하는 자에게, 원망하는 자에게있다.

30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잠긴 자;술을 의지하여 삶을 충실하게 꾸리지 않는 자에게.

31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2 그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 것이요 독사 같이 쏘 것이며

33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34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잠23:22-35)

“모든 대출 금리 한자릿수로…” 기업은행의 실험

이후 15년간 금융회사들은 고리 대출구조를 고집하며 손쉬운 돈벌이를 해 왔다.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금융회사의 ‘탐욕’이 비난을 받아도 좀처럼 변화하지 않았다.

조준희 IBK기업은행장이 반기를 들며 파격적인 도전에 나섰다. 기업은행은 28일 국내 은행 역사상 최초로 내년 1월부터 가산금리 제도를 전면폐지하고 감면금리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가계·중소기업대출 금리의 상한선이 각각 연 13%, 10.5%에서 모두 연 9.5%로 통일된다. 기업은행 거래 고객이라면 누구라도 연간 ‘한 자릿수’ 대출금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기업은행 출신 첫 내부승진 행장인 조 행장은 “아마 나는 임기 내내 수익이 떨어진 행장으로 기억될 것”이라면서도 “영광의 훈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가산금리 제도란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른 기본금리에 매출,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 이자를 추가로 부여하는 제도다. 은행별로 수백 종류의 가산금리 항목이 있으며, 그 중에는 고객의 학력 등 차별적 조항이나 연체자에 대한 약탈적 범칙금리 등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은행이 가산금리를 ‘대외비’로 취급한다.

기업은행은 이 같은 가산금리 제도를 없애기 위해 최근 감면금리 제도를 이식하는 전산정비도 완료했다. 은행업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인 만큼 IBK경제연구소와 은행 여신기획부가 공동으로 시뮬레이션 작업

을 벌여 오차를 없애는 데 성공했다.

조 행장은 “금리 개선 작업을 추진하면서 몇 번이나 그냥 덮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대출금리 상한을 낮추면 은행의 수익은 줄어든다. 기업은행은 올해 대출금리 상한을 두 차례 낮추고 무료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미 4000억원(추산)의 손해를 입었다.

은행이 수익을 포기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조 행장은 “기업들이 죽어간다고 아우성일 때 은행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적정한 수익만 챙기고 이들을 돕는 게 나은지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답을 내렸다”고 말했다. 1980년 입행한 32년차 뱅커(Banker)의 회한과 철학으로 읽힌다.